

친구가 된다는 것은...

내가 묻는 데 내가 대답하는 게 '사랑'이라면 '우정'은 무엇일까요. 언뜻 보기에 각각 음악 학습서, 생활사가 묻어나는 창작동화로 분리될 듯 보이나 두 책은 친구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던지지 던져줍니다. 보라색은 불안한 심리를 말해준 다 했던가요. 《음악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의 보라색 머리 샤를로트는 이유 없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멧돼지를 잡아라》의 동식이기도 마음을 꼭꼭 닫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로입니다. 물론 동식의 침묵은 장애인이라는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긴 합니다만 두 인물 모두 외톨이는 외톨입니다.

샤를로트가 침묵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계기는 보엠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우정의 선물인양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들을 통해 샤를로트는 새로운 행복을 느끼게 되지요. 비단 친구만이 아닙니다. 샤를로트는 음악이 생겨난 전설부터 피아노, 현악기, 타악기 등 여러 악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며 음악이 우리가 세상을 듣는 방식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한편 동식에게 다가오는 친구는 인라인 스케이트 사고로 넘어져 양 팔에 깁스를 하게 된 민수입니다. 샤를로트와 할아버지의 우정과는 달리 이들의 우정 만들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간해선 마음을 주지 않는 동식이기도 동식이지만 민수의 친한 친구 인국이의 질투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동식과 민수의 이야기는 우정이란 가슴 깊이 쌓아둔 솔직한 감정과 고민거리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한편 샤를로트의 이야기는 서로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그저 쳐다보기만 해도 마음이 통하는 것이 곧 친구라고 말하지요. 표현은 다르나 내가 마음으로 말할 때 너도 마음으로 대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정이란 의미겠지요. '우정'을 열쇳말로 놓고 봐도 재미있지만 《음악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는 음악학습서로도 손색없는 책입니다. **☞**

김청연 기자

활자에서 발견하는 동심의 샘물

손때 묻은 물건은 추억이 많아 아름답다지만 세상사에 때묻은 사람은 안타까움만 남길 뿐이지요. 그 대상이 아이들일 경우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책은 퇴색된 세상에도 티없이 맑은 동심은 살아 있다며 아이들 마음 속 샘물을 활자로 길어 올립니다. 저자들이 모두 아이들, 그것도 동심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한 귀한 필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책들이군요.

《개구리랑 같이 학교로 갔다》는 특히 도시에 사는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책입니다. 밀양 상동 초등학교 어린이 20명의 시로 사람과 자연의 향기를 동심의 활자로 잘 표현합니다. 농촌의 풍경은 도시의 풍경과 확연히 다릅니다. 이지유 학생은 〈땅콩을 캐고 따고〉에서 땅콩을 캐는 재미를 "여럿이 일을

《음악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도미틸 드비에나지스글 | 그웬달 블롱델 그림 | 백선희 옮김 | 산하 | 76쪽 | 값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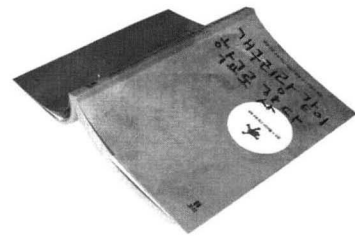
《멧돼지를 잡아라》

한정기글 | 황보순희 그림 | 다섯수레 | 152쪽 | 값 8,000원



《개구리랑 같이 학교로 갔다》

밀양 상동 초등학교 한 반 어린이 20명 지음 | 이승희 엮음 | 보리 | 200쪽 | 값 7,000원



《일기 따위는 절대로 안 쓸거야!》

황정한 엮음 | 박용석 그림 | 세계사 | 200쪽 | 값 8,500원



하니 지루한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공동체적 삶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우연히 만난 노루에게 톡 한마디 내뱉는 오수근 학생의 마음씨는 비단결 같습니다. “사냥꾼에게 잡히지 말고 너희 집을 잘 가라”(오수근 <노루>)

《일기 따위는 절대로 안 쓸거야!》는 글쓰기 지도를 해 온 작가가 자신이 지도한 아이들의 일기를 엮은 책입니다. 가슴 깊이 간직한 비밀부터 속상했던 기억들, 깨달음의 순간들까지 동심은 일기장 속에 자신의 마음을 가감 없이 표현합니다.

전학 간 사연을 소개하며 바지 지퍼가 열려 창피했던 기억을 더듬는 정음이는 혼자 전학을 가서 씩씩하게 생활하는 자신을 칭찬합니다. 자신과 짝꿍이 되고 싶어 달려오다 경쟁자들과 부딪쳐 다친 친구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일기 마지막 부분에 한달 내내 병준이에게 잘해줘야겠다고 다짐하며 ‘절대 비밀’이란 말을 적어놓은 게 참 귀엽습니다.

때론 상처도 입고, 고민도 하고, 어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대목에서 감동의 눈물을 쏟는 아이들. 순도 100퍼센트 동심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책들입니다. **김청연** 기자

생명의 원천, 물이 숨쉬는 강을 만나자

날씨나 교통 정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늘 듣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강 남쪽으로, 한강 북쪽으로...” 너무 자주 들어서 친구 이름마냥 친숙한 ‘한강’.

문화사학자 신정일 선생님은 내 뿌리가 중요하듯 강은 뿌리, 원천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너무 친숙해서 무심코 바라보게 되는 한강에도 갖가지 역사와 전설들이 숨겨져 있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강따라 역사따라》는 ‘강’을 주제로 우리 국토를 밟은 책. 실제로 우리땅 2천 킬로미터를 걸으며 강을 만난 저자는 발품으로 쓴 귀한 정보들을 내놓습니다.

소개하고 있는 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한강의 고향은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에 있는 검용소랍니다. 고향을 떠난 강물은 서울 강남에서 여의도, 자유로를 따라 흐르다 김포로 들어오지요. 그리고 김포를 거쳐 서해로 들어가며 생을 마감합니다.

비단처럼 아름답다는 의미를 가진 금강은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긴 강입니다. 강에 얽힌 이야기 중 용담댐 부근의 쌀바위 전설이 흥미롭군요.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야 하고, 욕심을 부리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귀한 전설이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신정일 선생님은 강은 “모든 사물에게 생명을 주고, 바다에 이르고, 우주로 올라가 다시 하나의 물방울로 탄생하는 귀한 것”이라고 그 소중함을 전합니다. 정보가 가득 담겼다 해서 지루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산하라는 친구와 황토현 선생님이 방학기간 중 4대 강을 답사하는 대화체 형식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건이 된다면 부모님, 친구들 손을 잡고 강을 주제로 한 답사 여행을 떠나도 좋겠습니다. 여행 전, 여행중, 여행 후 언제라도 참고하기 좋은 책으로 문화학습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김청연** 기자

《강따라 역사따라》 신정일 지음 | 박지영 그림 | 두산동아 | 182쪽 | 값 8,900원



학교 적응이 안 됩니다, 부모님과 대화가 필요해요,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죠?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가장 좋은 때라고들 말하지만 당사자들은 '샌드위치' 처럼 '깁' 세대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언뜻 똑같은 와이셔츠, 자켓, 스커트를 입고 있는 고만고만한 아이들로 보이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청소년들 마음 속에는 제각기 다른 고민들이 있답니다.

'공부' 가 주된 업무이니 '공부' 혹은 '학교생활' 에 얽힌 이야기들이 가장 공감을 사겠지요. 《중학교 1학년》은 중학교에 갓 입학한 마르코에게는 새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과목별 숙제는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점수로 평가받는 시험관문들이 기다립니다. 여기다 반장으로서의 부담까지 안게 되고. 마르코처럼 "중학교는 사각의 벽도, 딱딱한 걸상도, 체벌도, 금지 사항도, 피튀기는 경쟁도 없는 곳" 일거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다면 "아뿔싸"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될 사연입니다. 중학생이란 부담스런 이름을 갖게 된 한 아이의 복잡, 미묘한 심리를 제대로 읽어낸 수작입니다.

가식적인 의사 부모님, 부모님에게 조종당하며 사는 친구를 보며 회의감을 느끼는 요나스. 그런 요나스를 옥죄는 것이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우리나라의 수능시험과 비슷한 예비투어 시험입니다. 《그냥 떠나는 거야》의 요나스는 폭풍처럼 밀려오는 두려운 상황을 피해 여행을 준비하죠. 이 친구가 일상생활 속으로 복귀하기까지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는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공부국' 나라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청소년들이 반가워할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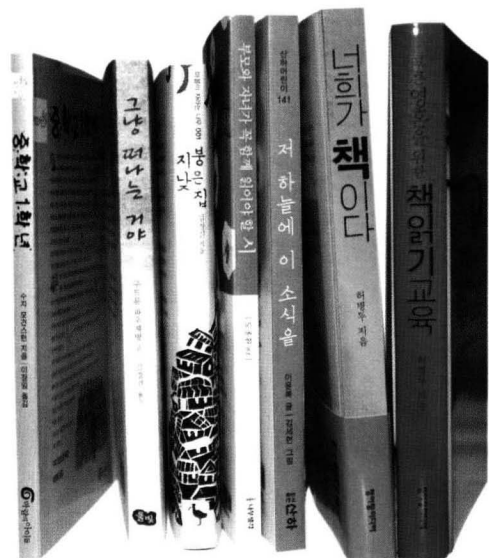
부모님과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을 주는 책들도 있습니다. 《지붕 낮은 집》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 가난에 허덕이며 밑바닥까지 곤두박질치면서도 서로를 끌어안으며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부모님 세대의

아픔을 이해하게 합니다. "언니 우리집 망해?"란 소리에 "아냐, 아버지가 공장에 다니잖아. 안 망

해."라고 답하는 자매 이야기가 애절하게 와닿고, "가난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무책임하게 애는 한껏 낳고 뒷바라지는 하늘에 맡긴다"는 독백 부분은 씩씩한 웃음을 머금게 합니다. 배고픔 모르고 외동딸, 외동아들로 귀하게만 자란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책입니다.

《저 하늘에 이 소식을》은 《저 하늘에도 슬픔이》에 이은 윤복이의 일기입니다. 술에 찌들어 사는 아버지 곁에서 동생들을 돌보며 살아왔던 윤복이는 '정직한 마음', '꾸뚝한 의지' 를 가진 청소년의 대명사였지요. 1권에 이어 나온 이 책은 집을 나갔던 여동생 순나, 어머니와 재회하는 윤복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재회하는 사연을 일기로 담은 윤복이는 여전히 건강한 의지로 꺾 찬 얼굴을 독자들 앞에 보여줍니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담백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현실에서 느끼는 가난의 고통들을 진실어린 표현들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웬만한 소설 못지않은 문학성을 보여주는 일기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장면들도 여럿 있습니다. 영화로 나온 '저 하늘에도 슬픔이' 를 보던 날의 일기에서 극장을 찾은 가족의 이야기는 한 시대 풍속사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또한 7년 만에 어머니와 재회하는 이야기는 어른들의 마음까지 적실 만큼 애잔합니다. 말미에 자신에게 격려의 편



- 《중학교 1학년》수지 모건스턴 지음 | 이정임 옮김 | 바람의아이들 | 184쪽 | 값 8,000원
- 《그냥 떠나는 거야》구두론 파우제방 글 | 김경연 옮김 | 풀빛 | 204쪽 | 값 8,500원
- 《지붕 낮은 집》임정진 지음 | 푸른숲 | 240쪽 | 값 8,000원
- 《저 하늘에 이 소식을》이윤복 글 | 김세현 그림 | 산하 | 216쪽 | 값 8,500원
- 《부모와 재나가 꼭 함께 읽어야 할 시》도종환 엮음 | 이수동 그림 | 나무생각 | 176쪽 | 값 7,800원
- 《너희가 책이다》허병두 지음 | 청어람미디어 | 324쪽 | 값 13,000원
- 《푸른 영혼을 위한 책읽기 교육》허병두 지음 | 청어람미디어 | 304쪽 | 값 13,000원

지를 보내주었던 사람들의 글도 모두 담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출판사측에 부탁하는 윤복이. 겨울 추위를 무색하게 할 만큼 따스한 마음이 느껴지는 책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꼭 함께 읽어야 할 시》는 제목처럼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시를 모아놓은 책. 총 3개의 장으로 구분된 이 책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전하는 시, 그리고 자녀, 부모가 함께 읽는 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평소 민망하고 쑥스러워 말 못했던 마음 속 이야기들을 시에 기대어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인생에 관해, 사랑에 관해, 충고할 거리들을 시로 전할 수 있고,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께 죄송했던 순간들에 대한 사과를 시 한 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쳐다보지만 해도 훌쩍 큰 키의 젊은 사랑아(〈아들에게〉 문정희)”라고 부모님이 운을 띄우면 자녀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중략)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심순덕)”란 시로 화답해 보는 건 어떨까요?

“방학인데 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질문하는 친구들에게 책읽기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책따세’ 활동으로 청소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셨던 허병두 선생님의 《너희가 책이다》는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구성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한국문학, 세계문학으로 나눠 책을 소개하는 형식입니다.

“추천도서는 지겹게 봐 왔다”고 말한다면 이 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네요.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책을 읽는 것에 대한 고민, 방법들도 함께 담겨 있거든요. 선생님은 《임격정》이나 《장길산》, 《삼국지》 같이 술술 읽히는 장편소설들을 먼저 읽으며 취미를 익혀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귀뜸해 주십니다. 또한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읽거나, 감동적인 부분이나 인상적인 대목에 밑줄을 긋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 친구에게 보내는 것도 책을 읽는 한 방법으로 소개되지요. 이렇게 소개되는 책은 총 66권. 선생님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책이니 자신의 책에서 좋은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삶을 가꾸어라라고 충고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독서교육 시 참고하기 좋은 《푸른 영혼을 위한 책읽기 교육》도 함께 나왔으니 아이들 곁에서 부모님도 독서 시간을 가져보세요. **유니**

김청연 기자

2004년도 겨울분기
올해의청소년도서 선정 목록

번호	분야	도서명	저자	역·편자	출판사명	정가(단위: 원)
1	과학·기술	과학에 크게 취해	막스 페루츠	민병준 외	술	10,000
2	과학·기술	교과서보다 쉬운 세포이야기	쿠로타미 아케미		푸른숲	9,800
3	과학·기술	미래 동물 대탐험	두걸 딕슨 외	김용서	한승	23,000
4	문학·예술	달밤	민영	황현산 엮음	창비	8,500
5	문학·예술	당신의 발에 입맞추고 싶습니다	장광열		동아일보사	11,000
6	문학·예술	석류	최일남		현대문학	9,000
7	문학·예술	석양	이태준	유인순 편	강원대학교출판부	9,000
8	문학·예술	소년의 눈물	서경식	이목	돌베개	10,000
9	문학·예술	술이 들려준 이야기	김기원		효형	14,000
10	문학·예술	아이네이스	베르길리우스	천병희	숲	28,000
11	문학·예술	“열하일기 상,중,하”	박지현	리상호	보리	총 3권 75,000
12	문학·예술	우리 그림 진품명품	장세현		현암사	12,000
13	문학·예술	조침문	유씨 부인 외	구인환 엮음	신원문화사	7,500
14	문학·예술	진정한 부	장 지오노	김남주	두레	8,900
15	사회·문화	경제학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	위리엄 브레이트 외	김민주	미래의창	17,000
16	사회·문화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	홍성태		궁리	15,000
17	사회·문화	의사가 말하는 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부키	“9,500”	
18	사회·문화	이곳만은 꼭 살리자	김남석		예림당	8,500
19	사회·문화	헌법의 풍경	김두식		교양인	12,000
20	역사	누구를 위한 협력인가:				
		비시 프랑스와 민족 혁명	박지현	책세상	“4,900”	
21	역사	사무라이	니토베 이나조	양경미 외	생각의나무	19,500
22	역사	조엽의 오월춘추	조엽	신동준	인간사랑	15,000
23	종교·철학	살아있는 우리 신화	신동훈		한겨레신문사	13,000
24	종교·철학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제임스 피저 외	이광래	열린책들	27,000
25	종교·철학	“왜사는가 1,2권”	무량스님		열림원	총 2권 19,000

·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